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예배부

설교

안녕하세요, 친구들! 혹시 배가 너무 고프지 않아요?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하면서 울먹인 적 있으세요? 또 목이 말라서 “물! 물! 주세요!” 했던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아무 음식도, 물도 없다면 어떨까요? 정말 걱정되고 무섭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광야라는 곳을 걷고 있었는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하나님! 배고파요! 목말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라는 특별한 음식을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보면 하얗고 둥글고 달콤했대요. 그리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반석을 쳐라!”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치자, 그 딱딱한 돌에서 물이 쿵쿵 나왔어요! 우와~ 정말 놀랍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세요. 밥도 주시고, 물도 주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힘들 때도 위로해 주세요. 그러니까 친구들, 배가 고프거나 마음이 슬플 때, 불평하지 말고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꼭 도와주실 거예요.

함께 따라 말해 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충일교회 가정예배부

예배 순서

사도신경	다	같이
찬송	하나님 지켜 주세요.	다	같이
말씀봉독	출애굽기 16:31~17:7	다	같이
설교	하나님은 언제나 필요한 것을 주세요!	설	교자
말씀나눔	다	같이
합심기도	다	같이
축복기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기도문	다	같이

- ★ 찬송과 축복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충일교회 가정예배부

찬양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축복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와 물을 주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필요한 것을 주셔서 감사해요.
불평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1. 하나님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2. 목마를 때, 하나님은 어디에서 물을 나오게 하셨어요?

충일교회 가정예배부